

## 대학총장이란 자리



진주산업대 총장 정해주

055) 751-3100

30여년의 관료생활을 마치고 생면부지의 대학총장직을 맡아 온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사실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총장은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학식과 덕목을 중시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고 바쁜 행정관료로만 생활해 온 나로서는 학구적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니 하는 미련도 솔직히 있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 대학총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클라크 커 전 총장은 총장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대학총장은 학생들에게 친구이며 교수들에게는 동료이고 동문들에게는 동반자이고 이사들에게는 건전한 관리자이며, 일반대중에게는 탁월한 연설가이고 재단이나 정부의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기민한 교섭자이고, 주의회에 대해서는 정치가이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외교관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박식가이고 기자들에게는 대변인이며 고유한 전공분야에서는 훌륭한 학자이다.」

오늘날의 총장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새겨봄직한 경구이다. 사실, 캘리포니아 전 총장의 말이 아니라도 오늘날 대학 총장은 급변하는 경쟁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외부경영자원을 확보하고 내부경영을 효율화하는 탁월한 경영관리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자가 되어야 하며, 내부혁신을 유도하는 변화의 추진자이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통합해나가는 민주적 지도자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때로는 학생들과 어울려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학교 축제 때는 어설픈 노래 한 곡도 불러야 되며 교

수님들과는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권위와 독선이 아닌 동료로서 인식을 갖게 해야 하고, 동문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하며 짬짬이 틈을 내어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특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궁핍한 학교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총장의 체면을 제쳐두고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세일즈 총장’으로서의 고민도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상위 대학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경우 총장의 경쟁력을 대학의 경쟁력에 곧잘 비유한다. 총장의 비전과 추진력, 그리고 세일즈 노력 여하가 대학의 발전에 직결된다하여 전국의 학계·기업계·관계를 살살이 뒤져 능력 있는 총장을 물색하여 영입하고 있다. 세계 최고라는 하버드대가 작년 7월 클린턴 정부시절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르렌스 서머스를 새 총장으로 초빙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대학의 총장을 상아탑에 안주하고 있는 고매한 지성의 상징으로만 여기기에는 대학이 처한 현실이 너무 절박한 것 같다.

어쨌든 대학총장은 수만명을 이끌고 가는 지성의 대표이자 최고 경영자이다. 현장을 누비는 팔방미인으로 행세하면서도 비전을 갖고 권한을 나누어 갖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출 때 참다운 총장의 제 모습을 보게되지 않을까?

대학총장 자리란 보람과 가치를 누리면서도 참으로 힘들고 고된 자리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다.

